

2016년 1회 하이에크 소사이어티

자유와 책임에 관한 뇌과학과 하이에크

2016년 3월 25일

민경국 교수 (강원대학교)

자유와 책임에 관한 뇌과학과 하이에크

민경국(강원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1. 문제의 제기
2. 자유와 책임에 대한 뇌과학의 도전
3. 하이에크의 두뇌이론의 관점에서 본 뇌과학
4. 하이에크의 헌법적 관점에서 본 뇌과학
5. 책임모텔의 원천과 자유사회
6. 뇌과학에 대한 반응
7. 맺는 말

1. 문제의 제기

지성사나 정치사에서 가장 오래된 그리고 아직 까지도 생생히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 개인의 행동과 행동결과의 책임 유무에 대한 믿음이 그것이다. 그 믿음은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다. 즉, 책임원칙의 전제는 자유의지라는 것이다(박상기, 2009: 217)¹⁾.

인간이 인과성에 예속되지 않고 의식적으로 그리고 마음대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할 경우에 그 행동과 행동결과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 주장은 르네 데카르트 전통의 구성주주의적 합리주의를 전제한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인과성에 좌우된다면, 이를 결정론이라고 말하는데, 그의 행동과 행동결과에 대하여 그에게 책임을 부여할 수도 없고 죄도 있을 수 없고, 그를 칭찬이나 비난해서도 안 된다고 한다.

1) 형법학자 박상기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자유의사를 전제할 경우에만이 비로소 행위자 개인에 대한 책임 비난이 가능하며.....” (박상기, 2009: 217)

이와 같이 결정론은 자유의지의 근거를 부정하고 그래서 책임원칙도 인정하지 않는다. 결정론은 자유와 책임의 부정을 이끈다는 이 믿음은 반대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그래서 보편적인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철학적 정치적 논쟁은 자연스럽게 인간행동은 인과적 결정의 산물이나, 아니면 자유의지의 산물이나의 논쟁으로 압축되었다. 이 논쟁은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어 철학적 사유의 차원에서는 물론이요 현실의 정치와 법 그리고 경제 등, 많은 실천적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 같은 논쟁이 끝나지 않은 채 20세기를 넘길 무렵에 현대의 뇌과학이 등장하여 이 논쟁이 다시 불붙기 시작했다. 뇌과학자들은 전에 없던 매우 정밀한 최첨단 도구를 가지고 두뇌연구를 했다. 그 연구는 매력적이고 그래서 자연과학자들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프린츠(W. Prinz)와 싱거(W. Singer), 그린(J. Greene) 등, 뇌과학자들은 인간행동의 인과적 결정성을 주장하면서 자유와 책임을 말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자유와 책임에 관한 그들의 핵심인식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Prinz, 2004: 20-26):

- 인간행동은 물리화학적 인과원리에 따르는 신경연결망에 묶여있다(신경결정론).
- 이 신경연결망의 바깥 어느 곳에도 "자유의지"가 있다는 과학적 근거도 없다.
- 그래서 인간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자유도 말할 수 없고 책임을 말하는 것도 중단해야 한다.

이 같은 인식은 자유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자유와 책임은 자유사회의 헌법적 원칙이기 때문이다. 사회구성원들이 이 가치들을 믿지 않으면 자유사회는 기능하지도 못하고 유지되지도 못한다. 자유롭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인간을 중시하고 이 같은 인간을 길러내는 것을 자유사회의 중요한 교육목표로 여기는 것도 자유와 책임의 그 같은 중요성 때문이다.

그래서 현대 뇌과학의 인식에 대하여 여러 학자들이 다양하게 반응하고 있다. 진화경제학자들 가운데 일각에서는 자유의지는 '허구'라는 것을 시인하지만 그래도 이것이 유용하다고 주장하여 자유와 책임을 견지하려고 한다(Shermer, 2008/2009: 417; Wegner, 2002: ch. 9).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 호르위츠는 인간행동은 물리화학적 법칙에 의해 결정되지만 그러나 물리화학적으로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선택자(free chooser)"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자유의지를 인정해야 한

다고 주장한다(Horwitz, 2010: 385-386).

흥미로운 것은 미국 대통령 소속 생명윤리 위원회위원, 가짜니가의 인식이다. 그는 자신의 2005년 저서 『윤리적 두뇌』 제III부에서 뇌과학의 인간행동 설명은 개인 차원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뇌과학은 책임규칙을 이해하는 데에는 별로 기여할 수 없다고 말한다. 왜냐 하면 책임규칙은 두 사람 이상이 사는 사회적 세계에서만이 의미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Gazzaniga, 2005: 100).

그에 못지않게 흥미로운 것은 독일의 유명한 경제학 교수, 반베르크의 인식이다. 그는 이 글을 쓰는데 매우 큰 도움을 준 최근의 논문에서 뇌과학이 말하는 자유와 책임 개념은 심리학적 범주이기 때문에 인간들의 상호작용을 안내하는 사회 질서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Vanberg, 2010ab).

그러나 우리의 관심을 끄는 사회철학자가 있다. 그가 197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이자 20세기 위대한 자유의 대변인으로 알려진 하이에크(F. A. Hayek)이다. 그는 현대 뇌과학이 등장하기 이전에 이미 두뇌이론을 개발했고, 그리고 자유의 의지와 책임 문제를 다루었다.

1952년에 발간된 (원래 1921년 21세가 되던 해에 집필했다) 저서 『감각적 질서』는 그가 개발한 두뇌이론서이다. 그도 역시 현대 뇌과학과 똑같이 인간행동의 신경결정론을 이론적으로 정립하면서 자유의지의 과학적 근거를 부정하고 있다.

자유와 책임 문제를 다룬 1960년 저서 『자유의 헌법』에서 그는 자유의지가 있어야 자유와 책임원칙이 의미가 있고 반면에 인간행동이 물리화학적-인과적 결정성에 좌우된다면 자유와 책임을 말할 수 없다는 믿음, 지성사와 정치사의 오래된 이 믿음은 “지적 혼란(intellectual muddle)”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하이에크는 인간행동의 인과적 결정성 때문에 오히려 책임원칙이 작동할 수 있고 존립의미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유의지는 책임 면제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자유의지는 과학적 근거도 없거니와 심리적 개인적 현상이기 때문에 사회적이고 법적인 범주에 속하는 “행동의 자유”로 대체할 것을 주장하기도 한다.

이 글의 목적은 한편으로는 하이에크의 저서 『감각적 질서』의 관점에서 뇌과학의 신경결정론을 검토하고 다른 한편 그의 저서 『자유의 헌법』의 관점에서 자유와 책임에 관한 뇌과학의 인식을 분석하는 것이다.

우선 다루고자 하는 것은 뇌과학이 어떻게 자유사회의 헌법질서에 도전하고 있는가를 다룰 것이다. 이어서 하이에크의 『감각적 질서』의 관점에서 인간행동의 물

리화학적 인과성에 대한 뇌과학의 주제가 타당한가, 그 한계는 무엇인가를 검토할 것이다.

뒤이어서 하이에크의 『자유의 헌법』의 관점에서 자유와 책임원칙을 부정하는 뇌과학의 입장을 분석할 것이다. 뇌과학의 인식에 대한 다양한 반응들을 하이에크의 입장에서 검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유와 책임 문제와 관련하여 뇌과학의 공과를 설명하면서 자유와 책임은 자유의지가 아니라 결정론과 부합한다는 것, 자유의지 개념은 전혀 쓸모없는, 그래서 내버려야 할 개념이라는 결론을 말할 것이다.

2. 자유와 책임에 대한 뇌과학의 도전

자유와 책임에 관한 뇌과학의 인식은 네 가지 주제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로 인간행동을 결정하는 인간두뇌의 작동원리에 관한 주제, 즉 인간두뇌는 스스로 조직하는 복잡계라는 것이다. 둘째로 인간행동은 물리화학적인 인과성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는 결정론이다.

셋째로 그 같은 인과적 고리의 바깥에서 인간행동을 조종하는 실체의 존재, 즉 자유의지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것,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인간은 자유롭지 못하고, 그래서 책임도 말할 수 없다는 주제이다.

중양사령탑이 없이 스스로 조직하는 복잡계

뇌과학은 인간두뇌의 구조와 기능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그에 따르면 인간 두뇌는 첫째로 외부환경이나 신체에서 신경을 통해 들어오는 자극 형태의 ‘정보’를 가공하고 이를 저장하는 기관이고, 둘째로 이 저장된 지식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다.

어떻게 이 같은 두뇌구조가 형성되었는가? 뇌과학은 그것을 시행과 착오와 선택이라는 장기적인 진화과정의 산물로 이해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두뇌구조는 인간들이 살아온 자연적 사회적 환경조건에 대한 적응의 결과로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두뇌구조는 인간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세계에 관한 지식과 이 지식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내포하고 있다.(Singer, 2006),

뇌과학의 핵심적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로 두뇌를 구성하는

신경세포는 물리화학적 원리에 따라 기능한다. 둘째로 인간두뇌는 수십억 개의 세포들과 이들의 수없이 많은 상호간의 연결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결들은 수시로 변경된다. 그래서 인간두뇌는 단순계가 아니라 단연 복잡계에 속한다.

셋째로, 인간두뇌는 분권적이고 전문화된 여러 개의 부분들(영역)로 구성되어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두뇌는 어떤 단일의 사령탑이 없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자율적으로 작동한다는 점이다. 두뇌를 스스로 조직하는 복잡계라고 말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²⁾.

인간행동의 신경결정론

두뇌가 스스로 조직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행동이 결정되는가? 인간행동을 결정하는 결정요인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축적된 유전적 지식
- 개인이 겪어온 역사경로를 통해 습득하여 신경네트워크에 저장된 경험지식
- 의사결정 시점의 환경이 주는 신호나 자극

두뇌는 축적된 지식과 그리고 상황과 결부된 신호들을 가공하여 행동을 산출한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그 같은 가공과정은 오로지 신경작용이고 이 신경작용은 물리화학적(인과적) 법칙성을 따른다는 점이다. 그래서 뇌과학은 이 같은 결정론을 “신경결정론(neuronal determinism)” 이라고 부른다.³⁾

요컨대, 인간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모든 자연현상과 똑같이 물리화학적 인과관계의 법칙성에 따르는 신경과정의 결과 이외에는 그 어떤 결과도 아니다. 이를 일반적으로 표현한다면 인간에게는 물리적인 것 이외의 그 어떤 특질이나 실체(substance)의 존재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인간정신의 존재론적 범주를 부정하는 주장이다. 그래서 이는 유물론(materialism)이다.

자유의지 개념에 대한 비판

뇌과학은 신경결정론과 연결하여 자유의지 개념을 논한다. 뇌과학이 그 존재를 부정하는 자유의지 개념은 무엇인가?

2) (Goschke, 2009: 127; Edelman, 1992; Fuster, 1995; Singer, 2004)기타 이와 같이 생각하는 문헌에 대해서는 기포드(Gifford, 2007: 269)를 참조 그가 열거한 인물들을 보면 두뇌는 스스로 조직하는 시스템이 보편적 의견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3) 신경들의 연결망(interconnection)이 우리를 꼭 묶어놓고 있다.(Singer, 2004: 30)

(1)중앙사령탑의 존재: 자유의지는 두뇌에 “사령탑(central steering instance)”으로서 ‘의식적인 자아’(I; Ich; Self; Selbst)의 존재를 전제한다. (Goschke: 2008: 113).⁴⁾ 그 사령탑이 “자유로운 의지자 (free-willer)”이다(Wegner, 2002: 322).

(2)사령탑의 존재위치: 그 사령탑은 물리적 인과관계의 고리 바깥에 존재한다. 로스는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Roth 2003: 498): “자연현상은 인과 법칙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의지력은 이러한 원리의 바깥에 존재해야 한다.”

(3)사령탑의 역할: 사령탑은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서 두뇌의 신경과정을 조종 통제할 수 있는 의지력이 있다. 이 의지력을 통해서 두뇌의 신경과정의 행동결정을 조종하고 통제한다(Goschke, 2008: 108).

(4)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이라고 해도 언제나 마음만 먹으면 달리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동일한 조건에서 달리 행동할 수 있을 가능성(andershandelnkönnen)”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자유의지, 의식적인 자아, 사령탑 등의 개념은 모든 자연현상처럼 인간도 물리화학적인 인과적 결정성에 예속되어 있다는 뇌과학의 인식과는 전혀 양립할 수 없다. 그 개념들은 두뇌를 스스로 조직하는 복잡계로 이해하는 것보다 맞지 않는다.

요컨대, 자유의지 개념은 어떤 과학적 근거도 없다는 것이 뇌과학의 인식이다.⁵⁾ 인간행동의 자연주의적 인과성과 무의식적 행동, 이것이 신경결정론의 핵심이다.

자유와 책임을 거부하는 뇌과학

개인의 행동과 행동결과에 대한 책임원칙과 관련된 전통적인 생각은 책임 원칙은 자유의지를 전제하고 반면에 결정론은 자유의지의 근거와 그리고 책임원칙을 부정한다. 따라서 중요한 문제는 인간행동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물리적 인과성에 의해 결정되는가 아니면 자유의지에 의해 결정되는가이다. 뇌과학은 전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뇌과학의 핵심적인 인식은 이렇다. 즉, 우리의 행동은 스스로 조직되는 두뇌 속에서 물리화학적인 인과원리에 따르는 신경과정을 통해서 결정된다. 자유의지는 과

4) 싱거는 이를 사령탑(Kommandozentrale)”이라고 말한다(Singer, 2004b: 43).

5) 정신과 육체의 이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처럼 이런 실체를 인정할 경우, 비물질적 정신이 두뇌에 어떻게 인과적으로 작용하는지, 그리고 비물질적 실체가 존재하는 장소가 어디인지를 밝혀야 한다. 그리고 정신이 육체를 조종한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두뇌가 존재하는지 설명이 있어야 한다. (Goschke, 2009: 112)

학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의 행동과 행동결과에 대하여 책임이 없고 죄도 없고 칭찬이나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Singer, 2004: 31).

이 같은 뇌과학의 인식은 자유사회에 대한 정면적인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자유가 개인에게 기회만을 의미하고 책임을 부정한다면 인간들의 다양한 행동들의 의미 있는 ‘조정(coordination)’이 불가능하다.

그 조정이 불가능하면 ‘적박하고 잔혹한 그리고 외로운“ 상황을 상징하는 “홉스의 문제(Hobbsian Problem)”가 필연적이다. 그래서 자유와 책임에 대한 믿음은 자유사회의 기능과 유지를 위해 불가결한 가치이다.

3. 하이에크의 두뇌이론의 관점에서 본 뇌과학

하이에크의 두뇌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행동에 관한 뇌과학의 인식은 타당한가? 그는 ‘대뇌피질 기억의 연결’ 개념을 다루고 있는데, 주요토픽은 인간행위를 결정하는 인지(perception)이다. 이 토픽에서 주관주의, 인간지식의 한계, 과학탐구의 방법론 등, 중요한 과학철학적 주제를 도출하고 있다.

노벨생물학상을 받은 에델만(G.M. Edelman)은 흥미롭게도 하이에크가 진화를 신경에 적용하는데 선구적 역할을 했다고 격찬하고 있다(Edelman, 1982: 24) 그에 의하면 하이에크는 두뇌의 특수한 신경세포와 외부세계로부터 정보를 전달하는 다른 세포들 사이의 연결이 어떻게 강화되는가를 보여줌으로써 헵(D. O. Hebb)이 발견한 시냅스(“Hebbian Synapse”)를 독립적으로 개발했다는 것이다.

퍼스터(J. Fuster)는 자신의 1995년 저서 『대뇌피질의 기억(Memory in the Cerebral Cortex)』에서 하이에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Fuster, 1995: 88):

“나에게 영감을 준 인물은 많지만 그래도 각별한 영감을 준 인물은 고(故) 하이에크이다 내 생각으로는 그는 대뇌피질 이론의 최초의 선구자이지만 아직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현대의 뇌과학의 인식, 즉 두뇌를 스스로 조직하는 복잡계로서 파악하는 것, 무의식적 두뇌작용을 강조하는 것, 인간행동의 자연주의적 인과적 결정성을 주장하는 것, 그리고 자유의지의 과학적 근거를 부정하는 것, 이 같은 뇌과학의 인식은 하이에크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타당하다. 중요한 주제들을 중심으로 하이에크의 정신

이론을 설명할 것이다.

육체와 정신의 실용적 이원론

하이에크는 『감각적 질서』에서 세 가지 질서를 구분하고 이들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i) 물리적 질서 ii) 신경감각질서 iii) 정신질서(Hayek, 1952: 39). 그의 핵심주제는 첫 번째 질서와 나머지 두 질서 간에는 동형성(isomorphism)이 없는데 반하여 정신질서는 신경질서와 동형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하이에크의 중심된 주제는 물리적 질서와 나머지 두 질서사이에는 구조적인 동일성이 없는데 반하여 물리-화학적 작용을 하는 신경질서와 그리고 정신질서는 구조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신이라고 부르는 것은 존재론적으로 독립된 실체가 아니다. 정신질서는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는 두뇌와 신경시스템의 생리학적 과정의 산물 그 이상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사고는 물리- 화학적으로 작동하는 신경작용의 결과이다.

그럼에도 그가 정신질서라는 개념을 이용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알 수 없는 물리적인 신경과정에 관한 설명을 위해서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정신과 육체의 실용적 이원주의)

다시 말하면 정신질서는 물리화학적인 법칙성에 따르는 두뇌와 신경계에 의해서 산출된다는 점이다. 수십억 개의 세포들로 연결된 신경질서는 외부세계에서 들어오는 자극이나 신호를 분류하고 인지하고 해석하는 분류장치라고 말한다.

그 장치는 타고난 지식과 그리고 개체가 삶의 역사에서 얻는 경험을 축적한다. 개인에게 고유한 외부세계에 대한 지도(map) 또는 모델에 해당된다. 이를 통해 세상을 바라본다.

바로 이 같은 분류장치에 의해서 외부세계의 물리적 자극이 정신적 질을 획득한다. 예를 들면 물리적 속성의 철붙이를 화폐로, 또는 “재화”로 인식하는 것, 이들은 모두 물리적 속성과는 전적으로 상이한 정신적 질로 전환된 것이다. 도구라는 개념은 물리적 대상을 물리적 속성대로 인지된 결과가 아니라 그 대상의 용도에 대하여 생각하는 믿음, 태도, 의견이다.

물리적 세계를 재화의 세계로, 물리적인 대상을 경제적 자본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두뇌(신경)작용이다. 물리적, ‘객관적’ 사물에 대한 의견, 태도, 가치, 세계관, 개념적 사고와 같은 이른바 비물질적인 것(비물리적인 것)도 물리적 질서의 여건들에

대한 신경작용의 결과이다.

신경결정론과 하이에크

하이에크의 두뇌이론적 관점에서 볼 때 뇌과학의 신경결정론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는 신경질서와 정신질서의 동형성을 말한다. 그에게 정신과정은 신경질서의 물리화학적 과정이외의 그 어느 것도 아니다. 인간행동도 그 같은 신경과정의 산물이다. 따라서 그의 이론도 “신경결정론”이라고 불러도 무방하다.

하이에크는 『감각적 질서』의 마지막 제8장 <철학적 귀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Hayek, 1952: 193)

“이 같은 생각들은 ‘자유의 의지’에 관한 오래된 논쟁과도 관련이 있다는 점을 이 계체에 언급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우리가 모든 인간행동은 **물리적 과정에 의해서 인과적으로 결정되는** 일반 원칙을 알고 있다고 해도 이것은 특정한 행동은 특정한 물리적 환경의 필연적 결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강조는 필자)“

하이에크는 1960년 저서 『자유의 헌법』에서도 자유의지 개념을 부정하고 결정론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Hayek, 1960/1996: 133-134)⁶⁾:

“외적 환경에 대한 반응, 즉 어떤 순간 개인의 행위는 그의 유전적 소질과 축적된 경험, 그리고 과거의 개인적 경험에 비추어 해석된 새로운 경험이 함께 영향을 미쳐 결정된다. -----결정론적 입장이 주장하는 바는 유전적 소질과 과거경험의 축적된 효과가 개인의 인격을 구성하며 외부 내지 물질적 영향에서 차단된 ‘자아’나 ‘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이에크가 말하는 결정론은 단순계에서나 볼 수 있는 결정론은 아니다. 복잡계에서 결정론은 일반적 조건하에서 나타나는 패턴의 종류와 관련된 것이다.

스스로 조직하는 복잡계로서 두뇌

하이에크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뇌과학이 두뇌를 스스로 조직하는 복잡계로 인식하는 것에 대하여 의심할 필요가 없다. 그도 하부시스템들(기능적으로 분권화

6) 미제스도 의지의 자유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다.(Mises, 1968: 49)

된 두뇌의 신경부위들)에 지시와 명령을 내리는 중앙사령탑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 분권적 두뇌작용은 진화적 장점이 있다. 이는 하이에크가 의미하는 “지식의 문제(knowledge problem)”와 관련되어 있다. 중앙사령탑이 의식적으로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하부시스템들을 조종하려면 이들이 제각기 가지고 있는 지식(각처에 분산된 지식)을 전부 수집가공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 분권적인 각 영역의 지식들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그 영역들의 경쟁을 통해서 그 충돌이 스스로 해결된다.

의식적 그리고 무의식적 두뇌과정

인간행동의 결정(또는 외부세계에 대한 인지)에서 무의식적 두뇌과정에 대한 뇌과학의 인식도 하이에크의 관점과 큰 차이가 없다. 하이에크는 재치, 재주, 어감 등,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암묵적 지식, 정의감이나 범감정, 문화나 어법 등과 같은 초 의식적 행동규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Hayek, 1967: 45).⁷⁾ 행동이전의 인지와 정신적 과정도 수많은 초 의식적 규칙들의 결합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두뇌는 의식적인 정보이용보다 훨씬 더 많고 훨씬 더 포괄적으로 저장된 지식을 동원할 수 있는 이유가 두뇌의 무의식적 과정 때문이다. 이는 진화적 선별에서 매우 유익한 역할을 했다.

더구나 의식적인 의사결정도 수많은 무의식적인 두뇌과정의 도움에 의해서 준비되고 또 그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뇌과학의 인식도 하이에크의 관점에서 볼 때 의심의 여지가 없다.⁸⁾

4. 하이에크의 헌법적 관점에서 본 뇌과학

하이에크에게 두뇌의 작동원리와 신경결정론에 대한 뇌과학의 인식을 반대할 근원적인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자유의지의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것도 전폭적으로 인정하리라고 본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자유와 책임의 가치를 부정하는 뇌과

7) “인간행동은 의식적으로 목적을 추구한다.”는 미제스의 명제에 대한 스미스의 논평은 스미스 (Smith, 1999: 200)를 참조

8) 하이에크는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화이트헤드(A. N. Whitehead: 1861~1947)를 인용하여 무의식적 두뇌작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Hayek, 1949/1998: 131).

학에 동조할 수 없다.

하이에크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자유의지는 행동과 행동결과에 대한 책임원칙과 부합하는데 반하여 결정론은 책임원칙과 충돌한다는 논리를 “지적 혼란” 또는 “유령과 같은 문제(phantom problem)” (Hayek, 1960/1995: 131)라고 비판한다.

하이에크의 그런 비판을 자유와 책임에 관한 뇌과학의 인식에 적용하면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에 책임원칙의 존재 근거가 없다는 뇌과학의 주장도 개념적 혼란에서 나온 인식이라고 비판할 것이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왜 뇌과학이 지적 혼란에 빠졌는가, 이 혼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지적 혼란의 이유

지적 혼란의 근본적인 이유는 뇌과학에는 협력과 분업을 기반으로 하여 인간들이 타인들과 관계를 맺는 사회와 관련된 이론이 없다는 점 때문이다. 책임과 그리고 칭찬이나 비난 등은 사회적 맥락(social context)에서만 의미가 있다. 미국의 생명윤리위원회 위원인 가짜니가가 정곡을 찌르듯이(Gazzaniga, 2005: 100), 책임은 인간들의 상호작용의 맥락에서만 의미가 있다.

뇌과학이 의미하는 자유개념으로서 자유의지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반베르크가 하이에크에 의존하여 말하듯이(Vanberg, 2010a: 26; 2010b: 12), 개인적 심리적 현상이다. 그러나 미세스가 유명한 저서 『인간행동』에서 보여주고 있듯이(Mises, 1963/2011: 561), 자유의 개념은 인간 상호간의 관계에 대해서만 의미가 있다.

자유개념에 관한 미세스의 견해는 책임개념에 관한 가짜니가의 견해와 일치한다. 적절하게도 그들은 자유와 책임은 사회제도와 관련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에크가 사회질서와 관련된 헌법적 맥락에서 자유와 책임을 논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본다. 헌법이란 국가헌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질서의 기초가 되는 도덕규칙, 법 등과 같이 인간행동을 조종하고 안내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도란 게임규칙에 해당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뇌과학이 개인적 심리적 차원의 개념을 사회적 차원에 적용하기 때문에 지적 혼란을 야기한 것이다. 반베르크가 아주 적절히 지적하듯이(Vanberg, 2010b: 8-9), 뇌과학이 지적 혼란에 빠진 이유는 개인적 심리적 범주와 사회적 범주를 구

분하지 못하고 전자의 결론을 후자에 적용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범주의 차원에서 자유와 책임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자유개념: 자유의지 대신에 행동의 자유

뇌과학은 “인간행동은 인과적 결정성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고 책임원칙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뇌과학이 사용하는 자유 개념은 “자유의지”이다. 그런데 이 같은 자유 개념이 자유사회의 헌법적 가치가 될 수 있는가?

현대 뇌과학이 하이에크가 지적한 지적 혼란에 빠진 것은 “자유의지”의 성격에 관한 이해의 부족 때문이다. 자유의지는 내적 자유에 속하는 형이상학적, 주관적, 개인적 현상이다(Hayek, 1960/1995: 37-38). 이 같은 자유개념은 인간들의 관계와 관련된 제도적 개념이 아니라 개인의 내적 심리적 현상을 기술하는 심리학적 범주이다.(Vanberg, 2010b:7).

그러나 하이에크는 자유의지 대신에 “행동의 자유”를 강조한다. 행동의 자유는 강제, 사기, 기만 또는 행동방해 등이 없는 상태이다(Hayek, 1960/1995: 29, 227). 이 같은 자유 개념이 인간과 인간의 관계와 관련된 것이고 그래서 사회적이다(위의 책, 33).

강제나 사기 기만은 이 같은 행위를 하는 자가 자신의 목적을 위해 타인들을 수단으로 만드는 행위이다. 그 같은 행위는 타인들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범)죄이다.

우리의 행동이 타인의 강제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면, 어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필연의 상황에 처해있다고 해도 우리는 자유롭다.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출구가 단 하나 밖에 없는 위험한 암벽에 매달려 있는 등반가는 그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해도 자유롭다” (Hayek, 1960/1995: 33)

결론적으로 말해서 개인적 심리적 차원의 개념으로서 “자유의지” 대신에 사회적이고 법적인 개념으로서 행동의 자유로 교체하는 것이 지적 혼란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이다.

책임원칙: 심리적 개념 대신에 제도적 개념

뇌과학이 의미하는 책임원칙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책임론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즉, 어느 한 사람이 동일한 조건에서 달리 행동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

게 행동하지 않고 이렇게 행동하는 경우(이것이 자유의지이다), 그는 이 행동과 행동결과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만약 그가 이렇게 밖에는 달리 행동할 수 없었다면(결정론), 그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도 없고 죄도 없고 비난받아서도 안 된다. 뇌과학이 이용하는 책임 개념과 죄 개념이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 심리학적 차원이라는 점이 또렷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두 사람 이상이 사는 사회적 세계와 관련해서 본다면 행동과 행동결과에 대한 책임부여는 심리적 의미와는 다르다. 하이에크가 강조하듯이(Hayek, 1960/1995: 136), 책임원칙은 인간들의 상호작용의 맥락에서만 의미 있는 법적 도덕적 범주에 속한다.

책임원칙은 개인의 행동과 그 결과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지 말고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거나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타인들에게 끼친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Vanberg, 2010b: 13; Mises, 1963/2011:563).

그 규칙들이 가짜니가가 정확히 표현하듯이 (Gazzaniga, 2005: 100), “사회적으로 구성된 규칙(socially constructed rule)” 또는 반베르크가 말하듯이 “사회적 규약(social convention)”이다(Vanberg, 2010b: 13).

결론적으로 말해서, 현대 뇌과학이 책임과 죄 개념을 개인적 심리적 범주가 아니라 사회제도의 차원으로 교체하는 경우 하이에크가 말하는 지적 혼란에서 벗어나기 위한 두 번째 단계이다.

책임원칙의 존재이유: 교육적 기능

책임부여가 사회적 규약이라고 한다면, 왜 이 같은 제도가 필요하고 중요한가? 우리가 개인에게 자신의 행동과 행동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부여하는 이유는 그의 행동에 영향을 미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서다(Hayek, 1960/1996: 134).

사람들을 칭찬하고 비난하는 것도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다. 게임이론의 의미로 표현한다면, 변절자에 책임을 부여하여 비협력적 게임을 협력적 게임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Gifford, 2007: 284).

하이에크에게 책임원칙의 존재이유는 교육적 기능이다. 이 기능을 자세히 설명하면 이는 사람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이끌고 또 그들의 행동을 보다 더 합리적으로

로 만드는 데 있다. (Hayek, 1960/1996: 134-136).

개인들이 잘못을 저지를 경우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것을 미리 알게 되면 그들은 조심스럽게 그리고 신중하게 행동한다. 책임 원칙이 적용되어 책임을 의식하게 만들면 그렇지 않을 경우에 취하게 될 장래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또 그런 행동을 변경할 것이다.

책임 원칙은 개인들에게 일종의 압박으로 작용한다. 첫째로 이런 압박을 받은 개인들은 타인들의 재산이나 신체, 그리고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그들 자신의 행동결과를 철저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인 처벌을 받거나 아니면 파문이나 “왕따”를 당한다.

책임원칙은 따라서 사람들에게 타인들에 대한 존중심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그 결과, 국가의 강제가 줄어들는다. 그리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여지가 커진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책임 윤리는 국가의 강제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이념으로서 자유주의의 근본이다. 타인들에 대한 존중심의 도덕은 개인의 책임의 윤리로 구현된다.

두 번째로 책임 원칙은 개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삶의 목표와 계획을 신중하게 만들게 한다. 실패의 결과는 전적으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투자의 성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진다면 신중하게 투자분야 선정이 이루어 질 것이다.

그렇지 않고 그 책임을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다면 멋대로 투자하고 멋대로 삶의 계획을 세운다. 요컨대 책임 원칙은 스스로를 존중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⁹⁾

다시 한번 책임원칙을 요약한다면 그것은 교육적 기능을 통하여 인간을 보다 합리적으로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개인의 책임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이 말해주고 있듯이 “인간의 번영(human flourishing)”에 있다고 볼 수 있다(Rasmussen, 1991).

그런데 인간 번영을 위한 기본적 덕성은 합리성이다. 이런 합리성은 자신의 행동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경우에만이 가능하다. 개인적 책임은 합리성을 제고하고 합리성은 인간의 번영을 가져다준다(Rowley, 1997: 410). 그런 번영은 자기 자신의

9) 흥미로운 것은 그런 책임의 결과에 대한 하이에크의 주장이다. 그 에 의하면 그 결과는 복지국가의 필요성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실패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없다면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하이에크는 책임문제의 논의에서 일종의 사회권적 기본권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전제이다.

번영뿐만 아니라 타인들의 번영에도 기여한다.

자유의 헌법: 자유의지 대신에 결정론

이제 중요한 문제는 책임원칙이 이 같은 사회적 기능을 행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인간행동에 대한 어떤 전제가 필요한가이다. 결정론이나 자유의지냐의 문제이다. 그 대답은 인과적 결정론이다. 즉, 책임부여는 원인이고 책임 부여의 결과로서 얻고자 하는 것은 범죄를 예방하는 것, 법을 잘 지키도록 만드는 것, 조심스럽게 투자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책임원칙은 인간행동의 인과적 결정성을 전제로 한다는 점이다. 이런 전제가 없이는 책임원칙의 사회적 기능은 기대할 수 없다. 인과적 결정성 때문에 사람들은 책임원칙에 용이하게 반응할 수 있다(Gifford, 2007: 286). 인간행동의 인과적 결정성 때문에 인간은 자연적 사회적 환경의 변동에 매우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었다.

이제는 자유의지 개념이 정말로 책임원칙의 존재를 정당화할 수 있는가를 보자. 자유의지는 웨그너가 아주 상세히 설명하고 있듯이(Wegner, 2002: 322-323), 과거의 어떤 경험이나 기억에도 좌우되지 않고 과거의 어떤 영향에 대해서도 반응하지 않는 행동이다. 그것은 어떤 원인에 의하지도 않는 행동이다.

따라서 자유의지는 “변덕스러운 미결정성”과 같다. 행동이 우연적이다.(Goschke, 2009: 114; Gifford, 2007: 273). 행동의 미결정성(indeterminism)은 전적으로 목적 없는(random) 행동과도 같다(Pauen, 2008: 11).

자유의지자(free willer)는 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칭찬·비난한들 아무런 의미가 없다. 책임을 부여한다고 해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자유의지자들이 사는 사회에서는 질서가 형성되고 유지될 수 없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유의지는 책임원칙의 전제가 될 수 없고 이는 오히려 책임면제의 근거가 될 뿐이다. 책임원칙은 결정론을 전제로 할 경우에 비로소 의미가 있다.

5. 책임모럴의 원천과 자유사회

사회적 구조물 또는 사회적 규약으로서 책임 원칙이 사회질서를 위해 중요한 기

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기원 또는 원천은 무엇인가?

하이에크는 그의 유명한 논문 <인간가치의 세 가지 근원>에서 책임원칙의 사회적 관행이 문화적 진화의 선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하이에크/민경국, 1989: 11; Hayek, 1978: Epilogue). 오늘날 문명된 사회를 가능하게 한 규범과 경제질서 그리고 법질서의 성공적인 진화의 상당부분은 책임원칙의 진화적 산물이라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생물학적 진화이든 문화적 진화이든, 인류의 진화, 호모 사피엔스의 진화는 반사회성의 진화가 아니라 친 사회성의 진화였다. 책임원칙도 인간의 친 사회성이 진화하는 과정의 산물이다. 이 진화과정에서 형성된 우리의 동기시스템과 가치시스템은 옳음과 그름에 대한 감정을 산출한다.

더구나 그 같은 시스템은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처벌할 비용을 기꺼이 부담하겠다는 자세도 야기했다. 이 같은 자세가 범위반을 막기 위한 형법이라는 국가제도의 도입을 정당화하고 이를 통해서 잠재적인 위반자를 방어한다.

물론 처벌과 보상의 형태로 책임원칙을 구현하는 것이 반듯이 성문화된 형법만이 아니다. 인류의 진화는 협력을 촉진하고 반사회성을 억제하기 위해서 다양한 처벌메커니즘을 탄생시켰다.

양심의 가책과 같은 내재화된 메커니즘을 비롯하여 비난과 칭찬 또는 그룹으로부터의 배제(따돌림) 등과 같은 비공식 처벌메커니즘 그리고 사적 그룹 내에서의 공식적 처벌 메커니즘 등, 무수히 많다. 이 같은 '내적 제도가 오히려 형법과 같은 외적 제도보다 사회질서의 강력한 뒷받침이다(Kasper/Streit, 1998: 103-105).

그래서 지나치게 법을 중시하면 책임을 오로지 법적 개념으로만 이해하고 도덕적 의무나 책임을 무시할 우려가 있다.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경제적 성공과 실패에 대한 책임감이다. 상이한 개인들 간의 상대적 위치가 결정되는 방식에 대한 승인도 책임에 대한 견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성공과 실패에 대한 책임이 법적이 아니라고 해도 이것은 법적인 것과 동일하게 작동하여 사회질서의 유지와 번영에 기여한다. 자원과 지식의 합리적 이용을 유발하고 더구나 중요한 것은 분별없는 위험추구를 지양하고 스스로 위험을 대비할 수 있게 만든다.

따라서 하이에크가 강조하듯이, 자유사회는 법에 의해 강요되는 의무를 넘어서 요구되는 책임감에 의해 인도되는 것을, 그리고 개인이 성공과 실패 모두에 책임진

다는 것을 모든 시민들이 승인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Hayek, 1960/1996: 136).

6. 뇌과학에 대한 반응

자유의지와 책임원칙을 부정하는 뇌과학의 인식에 대해 다양하게 반응했다. 그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은 양립가능주의와 그리고 호르위츠의 해석이다. 그 반응을 하이에크의 관점에서 평가하고자 한다.

양립가능주의와 하이에크

양립가능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견해에 의하면 인간이 외부의 강제에 의하지 않는 한, 자유의지는 존재한다고 한다. 이성과 신중한 의지, 개인적 믿음과 선호가 결정론적 우주의 산물이라고 해도 우리의 행동이 신중한 의지의 산물이라면, 또는 그것이 우리 자신의 믿음과 선호에서 생겨난 것이라면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양립가능주의는 자유의지와 결정론이 서로 양립한다고 보고 있다.

양립가능주의는 외부의 강제가 없는 상황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그것은 하이에크와 같은 생각이다. 양립가능주의에서는 자유의지는 신중한 의지, 이성, 확신에 의해 인도되는 행동을 말한다(Hayek, 1960/1995: 38). 그것은 일시적 충동에서 나오는 행동이나 무의식에서 나오는 행동을 배제한다.

이미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자유의지는 인간의 내면적 상황을 기술하는 심리학적 개념이기 때문에 사회질서를 이해하는 데에도 적합한 개념이 아니다.

그러나 양립가능주의와 마찬가지로 하이에크에게 결정론은 불가피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에서(Dennett, 2003: 25) 온건한 결정론을 수용한다.

호르위츠와 하이에크

흥미로운 것은 자유의지와 관련된 호르위츠의 해석이다(Horwitz, 2010:285-286). 그는 인간의 선택행동은 물리적 과정의 결과라는 사실을 인정하여 뇌과학 또는 두뇌생물학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하이에크처럼 그도 역시 실용적 이원론의 입장에 서있다. 정신적 사건들은 전적으로 물리적 과정의 산물이라고 해도 이를 물리적 의미로 환원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호르위츠는 선택이나 기타 정신적 사건들은 궁극적으로 두뇌 속의 생물학적 과정

의 산물이지만 이 물리적 과정을 자연과학적으로 완전히 설명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인간은 “자유로운 선택자”라는 믿음을 버릴 수가 없고 그 같은 믿음을 “실용주의적(pragmatic)”이라 말한다. 그에 의하면 정신은 의미를 만들어 내고, 그래서 인간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미의 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 같은 주장은 분명히 자유의 의지는 과학적 근거가 없지만 인간정신은 스스로를 완전히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자유의지 개념을 이용하여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유익하다는 주장이다.

흥미롭게도 결정론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책임원칙을 살리기 위해 자유의지 개념을 “유용한 환상”로서 또는 “마치 자유의 의지가 있는 것처럼”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Dempsey, 1996; Gifford, 2007: 286). 환상인 이유는 우리의 행동이 인과적으로 결정된다고 해도 우리는 그 인과관계를 완전히 알 수도 없고 의식할 수도 없기 때문에 마치 자유의지가 있는 것처럼 취급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자유의지 개념은 심리적 개념으로서 인간행동의 설명과 관련된 개념이라는 것 이외에도 자유의지자의 행동패턴으로 볼 때 그 개념은 사회질서를 위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개념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자유의지는 환상이기는 하지만 ‘진화적 부산물’, 또는 “두뇌의 창발적 특질”로 간주하여 ((Shermer, 2008/2009: 418, 419), 그 개념을 살리려고 한다. 마찬가지로 웨그너도 자유의지는 착각(illusory)이기는 하지만, 사회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허구라고 말한다.(Wegner, 2002, ch. 9).

그러나 자유의지 개념은 사회적으로 유용한 개념이 아니라는 것은 앞에서 설명했다. 자유의지자에게는 그 어떤 비난이나 칭찬도 의미가 없고 책임부여도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는 반사회적이다. 그 같은 인간들이 사는 세계에서는 사회질서가 형성될 수 없다. 왜냐 하면 도덕이나 법 또는 칭찬이나 비난 등은 그들의 행동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것은 자유의지자는 인간행동의 규칙성을, 다시 말하면 하이에크가 말하는 “규칙에 의해 인도되는 행동(rule-guided action)”, “규칙에 의해 인도되는 인지(rule-guided perception)”(Hayek, 1967: 43-45), 즉 “규칙을 따르는 동물”(하이에크/민경국, 1989: 240)로서의 인간을 이해하기도 어렵다.¹⁰⁾ 자유의지론은 구성주의적

10) 흥미롭게도 한국의 형법학자들이다. 뇌과학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은 듯하다. 형법학자 이재상은 결정론도 아니고 자유의지도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절충형을 택하고 있다.(이재상, 2008: 292-293). 김일수는 결정론이나, 자유의 의지냐는 논쟁의 문제가 아니라 확신의 문제라고 하여(김

합리주의의 산물이다.

7. 맺는 말

이 글의 목적은 인간행동은 자연주의적 인과성의 결과이고 자유의지는 과학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자유와 책임도 의미가 없다는 현대 뇌과학의 주제를 하이에크의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이다.

뇌과학은 자유와 책임을 부정함으로써 이들을 기반으로 하는 자유사회에 대해 도전적이다. 하이에크는 인간행동의 인과적 결정성 때문에 오히려 자유와 책임을 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이에크는 인간행동의 인과적 결정성에서는 뇌과학과 일치한다. 그러나 뇌과학은 자유를 심리학 개념인 ‘자유의지’로 이해한다. 그러나 하이에크에게 자유개념은 “행동의 자유”로서 이는 타인들의 강제가 없는 상황으로서 법적 자유개념이다. 자유는 인간들의 사회적 관계와 관련된 경우에만 의미가 있다.

뇌과학은 책임을 자유의지와 연결하여 개인적, 심리학적 국면으로 이해하는데 반하여, 하이에크는 책임을 인간행동을 조종하는 사회적 기능적 차원의 법과 도덕으로 파악한다는 점이다.

책임을 부여하는 이유는 그들이 지금과는 다르게, 보다 나은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사회적 기능은 인간행동의 인과적 결정성을 전제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다. 만약 자유의지를 전제한다면 그 같은 “자유로운 의지자 (free willer)”는 타인들의 비난이나 처벌, 칭찬이나 보상 등, 어떤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할 것이다. 그래서 자유의지는 책임 부여의 근거라기보다는 책임면제의 근거가 될 수 있다.

하이에크에게 결정론과 책임은 서로 밀접한 보완관계가 있다. 그래서 인간행동의 인과적 결정성에 대한 과학의 인식은 매우 훌륭함에도 뇌과학이 자유와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자유를 심리학적 개념인 자유의지로, 책임도 이 심리학적 개념과 연결하여 심리학적 현상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일수/서보학, 2006: 358) 현대 뇌과학의 인식결과를 간과하고 있다.

참고문헌

- 김일수/서보학 (2006) 『형법총론』 박영사
- 민경국 (2007) 『자유의 길, 하이에크의 자유주의 사상연구』, 한울아카데미
- 박상기(2009) 『형법총론』, 박영사
- 하이에크/민경국(1989)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냐』, 문예출판사
- Blackmore, C.(1988) *The Mind Machine*, London
- Dempsey, G.T. (1996) “Hayek’s Terra Incognita of the Mind”, *Cato Institute*,
White Paper pp. 1-20
- Dennett, D. (2003) *Freedom Evolves*, London
- Edelman, G. M (1992). *Bright Air, Brilliant fire*, New York
- Fuster, J. (1995) *Memory in the Cerebral Cortex*, MIT Press
- Gazzaniga, M.S. (2005). *The Ethical Brain*, New York
- Gifford, A.(2007) “The Knowledge Problem, Determinism, and *The Sensory Order*” *Rev. of Austrian Economics* vol. 20. pp. 269-291
- Goschke, Th.(2008) “Der bedingte Wille.” G. Roth/K. J. Grun(Hg)
Das Gehirn und seine Freiheit, Göttingen. pp.107-156
- Greene,J./Cohen,J.(2004) “For the Law, Neuroscience Changes Nothing and
Everything”, in *Philosophical Transactions: Biological Science*
Vol. 359. pp. 1775-1785
- Hayek, F. A.(1978) *Law, Legislation and Liberty, Vol. III Political
Order for Free People*, London
- (1960/1995) *The Constitution of Liberty* Chicago, 한글판 『자유의
헌정론』 김 균 역 자유기업원
- (1952/2002) *The Sensory Order*, Oxford 한글판 『감각적 질서』
민경국 역, 자유기업원
- (1948/1996) *Individualism and Economic Order*, 박상수 역 『개인주의와
경제질서』 자유기업원
- (1978) *New Studies in Philosophy, Politics, Economics and the History
of Ideas*, Chicago
- (1967) *Studies in Philosophy, Politics, and Economics*, Chicago

- Horwitz, S.(2008) “Analogous Models of Complexity”, in R. Koppl (ed)
Exploration of Austrian Economics, Bingley
- (2010) “I am not a “Neuro-Hayekian” I’m a subjectivist”, in W.
 Butoş(ed) *The Social Science of Hayek’s The Sensory Order*, Bingley.
- Mises, L.(1963/2011) *Human Action*, 4.ed. New Haven 민경국 박종운 역
 『인간 행동』 지만지
- Pauen, M.(2008)“Philosophische und psychologische Beiträge” in E.-J.
 Lampe(Hg) *Willensfreiheit und rechtliche Ordnung*, Frankfurt/M.
 pp.9-15
- Prinz, W.(2004) “Der Mensch ist nicht frei, Ein Gespräch,” Geyer, Ch.
 (hrsg.) *Hirnforschung und Willensfreiheit* , Frankfurt/M, pp. 20-26
- Roth,G.(2003) *Fühlen Denken, Handeln. Wie das Gehirn unser
 Verhalten steuert*, Frankfurt/M.
- Shermer, M(2008/2009) *The Mind of the Market*, 『진화경제학』 ,한국경제신문사
- Singer, W.(2006)“Der Freie Wille ist nur ein gutes Gefühl”. *Süddeutsche
 Zeitung* 2006. 4. 25
- (2004) “Verschlaltungen legen uns fest: Wir sollten aufhören, von
 Freiheit zu sprechen” Geyer, Ch.(hrsg.) *Hirnforschung und
 Willensfreiheit* , Frankfurt/M, pp.30-65
- Smith, V. (1999) “Reflections on Human Action After 50 Years”, *Cato
 Journal* Vol. 19, No. 2. pp.195-209
- Vanberg, V. (2010a) “Freiheit und Verantwortung: Neurowissenschaftliche
 Erkenntnisse und Ordnungsökonomische Folgerungen”, *Ordo*, Bd. 61.
 pp. 23-28
- (2010b) “Freiheit und Verantwortung: Neurowissenschaftliche
 Erkenntnisse und Ordnungsökonomische Folgerungen,” *Diskussions-
 Papiere zur Ordnungsökonomik 10/3* Walter Eucken Institut, pp. 1-28
- Wegner, T.D(2002) *The Illusion of Conscious Will*, Cambridge